번개장터를 통한 필요한 서비스 분석을 해보았습니다.

번개장터에서 현재 시도하고 있는 것들

1. 테라와의 협업/블록체인을 통한 안전거래, 신뢰성 증진을 노리고 있음

번개장터는 이번 파트너십에 따라 간편결제 서비스 '차이(CHAI)'를 오는 7일 도입한다. 먼저 차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최대 3%의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매자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적용한다. 기존 번개장터 거래의 경우 신용카드는 거래액의 3%, 가상계좌는 1.5%의 결제 수수료가 발생하나, 차이를 이용하여 결제 시 별도의 수수료가 없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. 이에 따라 할인에 민감한 Z세대의 성향에 발맞춰 소비자들의 쇼핑 부담을 크게 절감하고 거래 편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.

beinews.net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8211

현재 기존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

배달을 받고 물건확인한 뒤에 돈 입금(번개장터의 번개송금) https://yhk1018.tistory.com/22

특히 젊은층의 호응이 높다. 번개장터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MZ세대(1980~2000년생 밀레니얼 세대+1995~2004년생 Z세대) 가 전체 이용자의 80%를 차지했다. 이재후 번개장터 대표는 "자신만의 취향을 중시하는 젊은층의 소비 경향이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중고거래를 포함한 개인 간 거래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"며 "이용자가 매력적인 중고상품을 누구보다 쉽게 발견해 가장 빠르고 쾌적하게 거래하는 데 앞으로

++ 번개장터는 80%가 젊은층이 쓰고 있다.

2. 번개장터의 빠른 성장동력 안심거래 서비스에 대한 친숙도 증가 알고리즘을 통한 추천

거래액 외의 각종 지표도 번개장터의 거듭되는 성장을 증명하고 있다. 특히, 번개장터라는 서비스명에 걸 맞는 '번개 같이 빠른 거래'에 대한 지표가 눈에 띈다. 번개장터에 판매등록된 물품이 판매되는 기간은 최근 눈에 띄게 짧아지는 추세로, 번개장터에 판매등록된 상품이 10일 안에 판매되는 경우는 지난해 3분기 22%에서 올해 3분기 54%로 대폭 증가했다. 즉, 이번 3분기 번개장터에서 물품을 판매하고자 했을 때,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.5배 가량 빠르게 그야말로 '번개처럼' 거래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.

빠른 거래의 기반에는 머신러닝과 알고리즘 전문기업 부스트 인수 가 있었다.

검색, 추천 서비스가 사용자 빠른 거래의 원동력!!

번개장터 정리

- 1. 현재의 인기있는 중고거래 플랫폼은 사용자의 중고거래 안심을 이끌어 냈다.(젊은 사용자로 인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)
- 2. 알고리즘과 머신러닝을 통해 검색, 추천 서비스가 빠른 거래를 유도했다.
- = 인기있는 중고거래 서비스는
- 1. 안심할 수 있는 거래
- 2. 정확한 추천

1. 기본적인 e- commerce 웹 아키텍처

:계층화 패턴

참조: https://mm4mm.tistory.com/34

1. 계층화 패턴 (Layered pattern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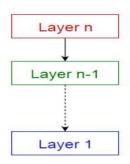
이 패턴은 n-티어 아키텍쳐 패턴이라고도 블린다. 이는 하위 모듈들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구조화 된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다. 각 하위 모듈들은 특정한 수준의 추상화를 제공한다. 각 계층은 다 음 상위 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한다.

일반적인 정보 시스템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계층 4가지는 다음과 같다.

- 프레젠테이션 계층 (Presentation layer) UI 계층 (UI layer) 이라고도 함
- 애플리케이션 계층 (Application layer) 서비스 계층 (Service layer) 이라고도 함
- 비즈니스 논리 계층 (Business logic layer) 도메인 계층 (Domain layer) 이라고도 함
- 데이터 접근 계층 (Data access layer) 영속 계층 (Persistence layer) 이라고도 함

활용

- 일반적인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
- E-commerce 웹 애플리케이션



2.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 아키텍처

참조 : https://yamalab.tistory.com/117

